

Very importantly we are told that each of these groups would remain strictly within its classified kind. A squirrel over many millions of years would not slowly evolve into a bird. This is what history has shown us. Allow me to demonstrate this.

On the screen you can see a Horseshoe crab. The picture at the top on the right shows the fossilised remains of a Horseshoe crab discovered in Manitoba Canada. Scientists claim that this fossil is 445 million years old. A figure I'd of course strongly dispute. More like 5000 to 6000 years. At the bottom of the screen you can see a picture of a man holding a Horseshoe crab today. Look very carefully if you will and compare the two pictures. What do you notice? What has changed? It's a trick question of course because the two crabs are exactly the same. Over 445 million years there has been no evolution. How do evolutionists explain this? They can't. The Horseshoe crabs simply didn't get the memo saying that over time they could become a dolphin! As Christians we can easily explain it. God created the Horseshoe crab.

복습 창조 여섯째 날

지난 주일 하나님의 창조 주간이 놀라운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창조의 정점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틱톡 영상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면 믿기 어렵지만 □□□□□.

오늘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한 가지 특정한 측면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조 주간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을 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 해가 뜨자 땅에도 생물로 채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물을 내리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유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축, 기어 다니는 것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입니다. "가축"은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동물로서, 인간들이 길들여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가는 것들"에는 파충류, 양서류, 날지 못하는 곤충, 그리고 거미, 전갈, 심지어 정치인과 같은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포함됩니다. "땅의 짐승"은 야생 동물로 보통 사람이라면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을 생물들입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봐야 할 동물들이죠. 하지만 창조 당시에는 이런 야생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초식동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어는 날카로운 이빨로 자두를 씹어 먹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세 범주의 동물들이 각각의 종류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다람쥐가 서서히 진화하여 새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투구게가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캐나다 매니토바에서 발견된 투구게 화석입니다. 학자들은 이 화석이 4 억 4500 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물론 이 수치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마 5000 년에서 6000 년 정도일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사진에 오늘날의 한 남자가 투구게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물론 두 투구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4 억 4500 만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진화는 없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구게가 많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돌고래로 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투구게를 창조하셨습니다.

When God had created all the animal kinds He stood back to evaluate His work. He had done a fine job. There were all manner of weird and wonderful creatures now living on the earth. It was all good. There was now just one "small" task remaining. God had saved His ultimate work of genius

till the very end. It was now time to make a creature unlike anything else He had yet made. This living creature would be very special. As I explained to you last time we enjoy a unique status among the created order. This is because only we are made in God's image.

To be made in God's image means that we are designed or created to be similar, but not identical to Him. We share many attributes that reflect God's character. This includes moral discernment (Romans 2:14-15), relational capacity (Genesis 2:18), and creativity (Exodus 31:2-5). Like God human beings are able to apply moral reasoning to any given situation, we have the ability to be creative, we have a degree of intellect, and like our creator we possess the ability and strong desire to form relationships.

We also learn that God made us with a particular purpose in mind. We are to have dominion, or rule over the creation and subdue (control) it. In this respect we are to act as God's representatives upon the earth. In the ancient Near East, rulers would place images or statues of themselves throughout their realm to signify authority. In a comparable sense, humans are God's "living representatives," empowered to act as stewards over creation. The notion of stewardship is important. A steward acts on behalf of someone else. It is not their property to use and abuse as they wish. This is what God intends for us. We are to carefully manage and care for His creation. This means treating the earth and its fellow inhabitants in a respectful and responsible way.

When God had created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He blessed them and told them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hey are also told, along with the animals that they are to follow a strict vegetarian diet.

With everything now complete God pronounced everything to be VERY good and the sixth day came to a close.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훌륭했습니다. 이제 땅 위에는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작은" 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궁극적인 걸작품을 마감까지 지켜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 불가한 생물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이 피조물은 매우 특별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지위를 누립니다. 이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많은 속성을 공유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분별력(로마서 2:14-15), 관계 형성 능력(창세기 2:18), 그리고 창의력(출애굽기 31:2-5)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어떤 상황에서든 도덕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고, 창의력과 지성을 갖추고 있고, 창조주처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능력과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통제)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왕국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미□□□□□□"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지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채식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매우 좋다고 선언하셨고 여섯째 날이 끝났습니다.

1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e host of them, were finished.

Chapter number two of Genesis begins with what we might term a summary statement. It harks back to creation week that has just concluded. As I occasionally remind you the chapter and verse divisions that we find in our modern bibles were not part of the original. So reading our segmented bibles today it may seem like a bit of a lurch from chapter one into chapter two but to the original readers this verse just follows smoothly on from chapter one.

We read here that the work of creation is now complete. The scientific world of course disagrees with such a sentiment. Science tells us that things are in a constant state of change and evolution. That Horseshoe crabs really will one day become dolphins! This is not the case. But don't tell the Horseshoe crabs. They are hoping one day to appear at Seaworld.

God's Word emphatically informs us that on the sixth day all of creation was finished. Allow me for emphasis to just reiterate that point. The creation was finished at the end of six literal 24-hour days. Since that time, there has been no other act of creation.

So its worth us pausing at this point just to consider the different approaches one can take on the subject of creation. If you were to ask someone on the street or at work where life originated how would they answer? It's important to know this so that we can more effectively understand people's positions and what informs their world-view.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creation, or where everything came from we really only have three options. Everyone must fall into one of these three positions.

Option number one is **materialistic evolution**. Those holding this view believ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creation and no such thing as God. The entire universe “simply” came into existence out of nothing. They maintain that somehow, out of nothing a “primordial soup” appeared and after billions of years this mutated or evolved into all the intricate and complex life we see around us today. I like to summarise this position as follows. Once upon a time nothing exploded and formed everything. You need to have a LOT of faith to believe this.

The second option is what is termed **theistic evolution**. Those holding this view believe that there is a creator God who initiated the creation process. However God in their view determined to work through evolutionary processes. So, in some way God is overseeing things whilst allowing evolution to be the main driver of change. Critics of this approach say that it makes God out to be bumbling and incompetent. He was unwilling or unable to make things right the first time. Such a thought is blasphemous. It also means suffering and death were part of God's design before the fall of man. As I hope we all appreciate such ideas run contrary with what scripture reveals about God, creation and sin.

The third possibility is **divine creation**. Those who believe this, hopefully all of you listening affirm that an eternal, all wise, all powerful God made the universe and all within it in six days. He achieved this feat without the need for evolution.

As we have established the work of creation is now complete. What do you suppose God will do now that the creative process is now finished? Let us read on and find out.

1 천자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 장은 요약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 장에서 완성된 창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듯이, 현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과 절 구분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1 장에서 2 장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독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1 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창조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계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투구게가 언젠가 돌고래가 될 거라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투구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들은 언젠가 싸월드 SeaWorld 에 출연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창조는 하루

가 24 시간인 6 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어떤 창조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창조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길거리나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 □□□□ □ □ □□□□ □□□ □□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라는 주제, 즉 모든 것이 시작된 기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세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세 가지 견해 중 하나를 지지합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적 진화론** materialistic evolution 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창조도, 하나님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주 전체가 "단순히" 무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에서 "원시 스프 primordial soup" 가 나타났고,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이것이 변이하거나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를 요약하면 아주 먼 옛날 아무것도 아니던 것에서 폭발적으로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유신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과정 자체를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통해 알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지만, 진화가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허용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서투르고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의지가 없었거나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성모독입니다. 또한 이는 고통과 죽음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 창조, 그리고 죄에 대해 성경이 계시하는 바와 상반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론** divine creation 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여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 일 만에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 없이 이 위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는 끝났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계속 알아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 And on the seventh day God ended His work which H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done.

Our creator God had been intensely busy over six consecutive working days. It was an early start, no time for a mid-morning coffee break, a hurried lunch and then working late into the evening. Not surprisingly after six days of this God was exhausted. No, please disregard all of what I just said. God took a day of rest after six days of work, but not because He was tired or needed a rest. Our awesome God does not tire or become weary. Things never become too much for Him. He never requires a moment to sit down and take a break. Let no such thought ever cross our minds. God is not prone to our human weaknesses and failings. We are told this in Isaiah.

Have you not known?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Neither faints nor is weary.

(Isaiah 40:28)

The same sentiment is repeated in Psalm 121.

Behold, He who keeps Israel Shall neither slumber nor sleep.

(Psalm 121:4)

So why did God take a day of rest? God took a day of rest because He determined that the seventh day was to be a special and important day, and God intended it to be seen as such. The word "seven" comes from a Hebrew root meaning to be full or complete. So the creative part of God's

work is now over or complete.

It's also important that we not misunderstand what is meant here by the word “rest.” We think of “rest” as being a much need period of inactivity between bouts of labour. We rest because we need to recuperate or recover our energies before recommencing our work. The Hebrew word used here *shabbath* simply means “not to do work.” It's probably most helpful here then to think of it as meaning to “cease” or to “desist” from work. So we are being told that God is making a meaningful decision to break (cease) from the pattern of the creation week and initiate a day of rest. This was simply because the work was done.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But of course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In essence what God is doing here is establishing the pattern or model for our working lives. We work for six days and then take a day off from work. As I mentioned to you before this is I believe clear evidence that a day in the creation account is a literal 24-hour period. Any other understanding of “day” here would just lead to nonsense. This concept of an official day of rest is later established more fully when God reveals the Law to Moses. At that time we see the Sabbath rest day coming into existence In Exodus chapter 20 we read the following.

9 Six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10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your God. In it you shall do no work: you, nor your son, nor your daughter, nor your male servant, nor your female servant, nor your cattle, nor your stranger who is within your gates. (Exodus 20:9-10)

Here in Genesis we should not understand this as being the proper or officially commanded “Sabbath rest day.” Although it is clearly the basis for it.

Adam is not forbidden from working and we have no record of Noah, Abraham or anyone else before Moses marking it as such.

The take-away here is simply that God is purposefully modelling for us the pattern for our working lives. This is not something to pass over lightly.

God, as our creator knows that we function best when we adhere to this particular cycle. If we don't follow such a pattern it can lead to problems. Potentially we work too much and exhaust ourselves and also neglect our other obligations. This is a particular problem here in Korea where parents often work such long hours that they seldom get to spend any quality time with their children.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we see an entirely different problem emerge. If we are not encouraged to work we can easily become lazy and unproductive. We see evidence of this today in university graduates being unmotivated to seek proper full time jobs, and remaining content to work part time jobs or not looking for jobs at all. We could I think benefit today from getting back to God's original design. The Christian life is to be one of hard work and effort. Working from home, and a four day working week! Not the way to go. God, not surprisingly knows what is best for us.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 일 동안 연속적으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점심도 허겁지겁 드시고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6 일 동안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모두 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6 일 동안 일하신 후 하루 쉬셨지만,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일도 너무 벅치지 않습니다. 잠시 있어서 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피로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하길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사야40:28)

사편 121 편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자시는 이는 쫓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편 121:4)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을 취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하고 중요한 날로 정하셨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은 "가득 차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일은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식rest"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을 노동 사이에 필요한 휴식 시간으로 □□□□.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샤브트shabath"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not to do work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일을 그만 하다" 또는 "중단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간 동안에 일하던 패턴을 멈추고 하루의 안식을 취하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할 일을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 생활을 위한 패턴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6 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창조 기록에서 '하루가 문자 그대로 24 시간을 의미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터무니없는 결론이 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때 안식일Sabbath rest day 이 생겨났습니다. 출애굽기 20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이대나 네 딸아나 네 남종아나 네 여종아나 네 가축아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9-10)

오늘의 본문 창세기 구절을 공식적인 "안식일Sabbath rest day"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이 후대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알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이전의 그 누구도 안식해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의 주기를 따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해 지치고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장시간 일하느라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할 필요를 못느낀다면 쉽게 게으르고 비생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 졸업생들이 정규직을 구하려 하지 않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만족하거나 이에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설계대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주 4 일 근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3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because in i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had created and made.

We should note here the special way that God deals with the seventh day. It is marked out as being distinct and separate from the other six. He does this in two ways.

First, by blessing it. There is no record that He blessed any of the previous six days.

Second, He sanctified it, or made it holy. In effect He set it apart for His own special purpose. The Hebrew word used here for “sanctified” is *qodesh* (kaw-dash). The root meaning of *qodesh* is the idea of “cutting off,” or, “separating.” So our understanding here should be that the seventh day is a special day. It is a day cut off, or separated from the other days of the week. It is intended to be a day that is lifted up and exalted.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the UK Sunday was a very different day to the rest of the week. It was markedly different from Monday through Saturday. Now I am not suggesting that everyone attended church and devoted the day to worshipping God. Far from it. But it was a day in which the normal activities of daily life were purposefully curtailed. Workplaces, libraries, museums and shops were closed and public houses (bars) had very limited opening hours. Now, I am sad to say Sunday in the UK is a day like every other. On Sundays, you can do whatever you could do on any other day of the week. Sunday is no longer cut off or special.

For God, it was made special because it was on this day that He stopped the creation work. I want to emphasise that point. God ceased from the work of creation, but He did not desist from “working.” God is always at work sustaining, upholding and maintaining the universe He created. Everything that exists remains entirely dependent upon God's continued “work.” As the Lord Jesus Himself told us.

But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have been working.” (John 5:17)

However we need to also remember that at this time the world was in a perfect state. The effects of sin had not yet come into effect. So God could sit back and delight at the good thing He had created.

Let us continue.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사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 날과 구별되고 특별히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나타내십니다.

첫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의 여섯 날 중 어느 날도 축복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둘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 sanctified "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쉬(*qodesh*)'입니다. '코데쉬의 어근은 "잘라내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날입니다. 그 날은 의도적으로 높임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일요일은 나머지 요일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바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에는 일상적인 활동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직장, 도서관, 박물관, □□□□□□ 단았고, 술집(선술집)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영국의 일요일이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요일에도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일을 마치셨지만, "일working" 자체를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유지하고, 붙들고, 관리하시며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17)

창조 당시에는 세상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죄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에 만족하셨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4 This is the history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Bible readers are sometimes puzzled when they come to this verse in the Genesis account. It appears on the surface at least as though we are reading a second creation account.

Some have even gone so far to claim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different creation account written by a second writer who is in conflict with the first writer. That's not what is happening here.

Its perhaps best to think of what we are reading in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as representing a macro and micro view of creation. In chapter one it is the big picture macro view. We are watching the whole of creation unfold from a distance. Now, here in chapter two we are zooming in to see things from the micro level. Moses is asking us to look more closely, and see how God created man and woman, placed them in a specific location and reveals what became of them. The focus then is on human-beings and God's relationship with them.

Technically speaking verse four of chapter two marks the first *toledot* (tol-ed-aw) of Genesis. A *toledot* is a literary device that gathers genealogical information, historical records, and theological themes into an organized collection. We can identify a *toledot* when we see the phrase “This is the history of...” or as some bible translations render it, “These are the generations (*toledot*).” So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n account (record) of what the Lord did prior to, and including the creation of man.

Another interesting thing to note is that the word “Lord”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The term “Lord God” is *Yahweh Elohim*. As I've told you before when we encounter a fully capitalised LORD in our English bibles it represents the name Yahweh (the covenant name of God). The English word “Lord” actually has a fascinating history.

When Christianity first came to the pagan Anglo-Saxon tribes living on the island of Britain 1,400 years ago, they had no tradition of Christian words. They had to find appropriate Saxon words to name things in their newly adopted faith. Naturally they needed a name to refer to God. To do this they looked at their own societal structure for a suitable word. They required a word that carried majesty, power but also the conveyed the idea of provision and protection. One of several they used to refer to the Lord was *hlaf wearden* it means “loaf warden.” It was a common title given in that culture to the head of a household. It survives today in the idea of the “breadwinner.” The person who though their labour or work provides the staple food source (resources) that keep the family alive. Over time the name was shortened to simply *hlafard* meaning “lord.” Later in history as the aristocracy emerged the lord of the manor would be seen as the one who provided “bread” to those living under his authority. So the term “lord” stuck as a name for the God who provides for all our needs.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사던 날에

성경 독자들은 창세기의 이 구절을 접할 때 종종 당혹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첫 번째 저자오는 다른 두 번째 저자가 쓴 또 다른 창조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창조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 장에서는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창조의 전체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리고 2 장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장소에 두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따라서 초점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맞추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2 장 4 절은 창세기의 첫 번째 *톨레도트* *toledot* 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에 관한 정보, 역사 기록, 신학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것은 ...의 역사이다 This is the history of..."라는 구절이나,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것은 ... 세대이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toledot*)"라고 번역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여기 구절들은 인간 창조 이전과 인간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Lord"라는 단어가 성경의 이 부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Lord God"이라는 표현은 *야훼 엘로힘* *Yahweh Elohim* 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쓰인 LORD 는 야훼 *Yahweh*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를 나타냅니다. 영어 단어 "Lord"는 실제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00 년 전 영국 섬에 살던 이교도 앵글로 색슨족에게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당연히 기독교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할 용어에 해당하는 색슨 *Saxon* 단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God* 을 지칭할 이름도 필요했죠.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구조에서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위엄과 권력을 내포하면서 공급과 보호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단어 중 하나가 '빵 관리인 *loaf warden*'을 뜻하는 '*hlaf wearden*'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집안의 가장을 일컫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칭호였으며, 오늘날 '가장 *breadwinner*'이라는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식(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름은 '주인 *lord*'을 뜻하는 '*hlafard*'로 축약되었습니다. 이후 귀족 계급이 등장하면서 영주는 자신의 권위 아래 사는 $\square\square\square\square$ '빵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lord*'라는 용어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5 before any plant of the field was in the earth and before any herb of the field had grown. For the LORD God had not caused it to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man to till the ground*;
6 but a mist went up from the earth and watered the whole face of the ground.**

These verses describe global conditions prior to the creation of man. The emphasis here is not really on what was there, but what was not there. So we note this was before the "plant of the field" and any "herb of the field" had grown. Some see the mention of "vegetation" here as connecting back to Genesis 1:11.

However when we look more closely we see that different words are used in the Hebrew. On the third day of creation God created grass and vegetation (*de'se*) and herbs (*e'seb*). These are very general terms. But here in verse five Moses is much more specific.

He singles out the "plant of the field" (*siyach*) and "herb of the field" (*e'seb hassadech*). This passage then is speaking about a lack of cultivated crops. Things grown specifically for human consumption. The distinction being drawn then is between arable and non-arable plants. I am speaking here of cereal crops, rice, vegetables and edible herbs. Other plants, herbs and grasses were in existence but not the plants we require for food. There are two reasons given for this.

Firstly, that it had not yet rained. We will not see any mention of rain until the flood account. As I mentioned during the sermon on the second day of creation many believe that a watery (vapour) canopy encircled the earth at this time.

The thick blanket of water vapour meant that no rain cycle (as we know it) existed. However the vapour canopy did provide for a rich system of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resulting in heavy dew or ground-fog. This was fully sufficient to provide for the needs of the non-arable plants that existed at this time.

Some completely dismiss this whole vapour canopy theory. They argue that this verse is only stating what things were like prior to the creation of Adam and Eve. We should not therefore read into this that it did not rain from the creation all the way up to the time of the flood a period of 1656 years.

In case you were wondering we arrive at this number by adding together the genealogies found in chapter 5 of Genesis. Anyway back to the rain.

The bible does not provide conclusive proof either way. It may well be that after God created arable crops it rained, and they grew in the same way they do today. But, it may equally be the case that God provided all they needed to thrive and develop with mist vapour or fog that we are told here rose up and watered the ground.

The second reason given for why there were no cultivated crops is the rather obvious one. There was no one yet in existence to cultivate them. Crops need farmers to tend to them. The soil needs to be tilled and seeds planted in order for these things to grow. Here again we see God's purpose in creating man. We were created to have dominion and take control of the earth. This is a call for human beings to manage and use the resources God has placed at our disposal. The stage then is set for God to create humanity.

Let's read on and see how He does it.

5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고 밍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구절들은 인간 창조 이전의 지구적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없었는지입니다. 즉, “초목(plant of the field)”과 “채소(herb of the field)”가 자라기 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식물(vegetation)”이 창세기 1 장 11 절과 관련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은 풀과 초목(*de'se*)과 채소(*e'seb*)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 5 절에서 모세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초목”(*siyach*)과 “채소”(*e'seb hassadech*)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경작 작물(*cultivated crops*) 이 없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즉, 인간이 먹기 위해 특별히 재배하는 작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경작 가능한 작물과 경작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 가능한 작물은 곡물, 쌀, 야채, 식용 채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식물, 풀, 초목들이 이미 존재했지만 우리가 식량으로 이용하는 식물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창조 둘째 날에 대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square\square\square$ 그 당시 수증기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수증기층 때문에 비의 순환(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증기층은 풍부한 증발과 응결 과정을 통해 이슬 또는 땅을 적실 안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존재했던 경작 불가능한 식물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증기층 이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이 아담과 이브 창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창조부터 홍수까지 1656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56 년이라는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이는 창세기 5 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모두 더하면 나옵니다. 자, 다시 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의견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 가능한 작물을 만드신 후에 비가 내렸고,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작물이 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개나 수증기를 통해 작물이 번성하고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합니다.

경작 작물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작물을 재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물은 농부가 돌봐야 합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

조하신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라는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시다.

7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We come now to how God specifically created humankind. As you will remember back in chapter one (1:26–28) we read about how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then God created (bārā’)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As I explained to you before that was the big picture view. Moses is now zooming us in so that we can see, and appreciate the very special care that God took when creating human beings.

The first thing for us to note is that the first human to be made was an adult human male. He would shortly be named Adam. The name is most fitting.

This is because it derives from the Hebrew root *adamah* meaning “dust,” “earth,” or “soil.” So God made Adam out of the dust and decided to call him “Dusty.”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observations to be made here.

First, the substance and method that God used to make man makes him unique among all of God’s creation. To create the other parts of creation God simply spoke them into existence. When it came to the animals He called them to come forth from the earth. But here, with man God adopts a different creative approach. God it seems got “His hands dirty” in the creation of man. God of course being spirit does not literally have hands but you understand what I mean. The Hebrew word for “formed” is the word *yī’ser*. It is the same word that is used to describe the work of a potter, sculptor or an artist. A potter takes a formless lump of clay and fashions it into something useful or desirable. A similar thought is uttered by Job.

**‘Your hands have made me and fashioned me,
An intricate unity;
Yet You would destroy me.**

(Job 10:8)

This same idea is also expressed by Isaiah

**Surely you have things turned around!
Shall the potter be esteemed as the clay;
For shall the thing made say of him who made it,
“He did not make me”?
Or shall the thing formed say of him who formed it,
“He has no understanding”?**

(Isaiah 29:16)

So man is formed from the dust of the ground. This means that human beings were made from pre-existing material. The dust of the ground. Man's body is composed of the basic elements of the earth. Not just "dust" but the smallest particles of which the earth is formed (nitrogen, oxygen, calcium, etc). Modern science has proven that human beings do share a basic elemental structure with the raw materials of the earth.

When you use the vacuum and clean behind the sofa it is dust along with toe nail clippings, hair, snack wrappers and cockroaches that are sucked up. What is sucked up into the vacuum cleaner is useless detritus. Dust is a substance that has no value.

Now God could have chosen any material from which to form us. He might have selected silver,

gold, gemstones or even granite to make man. Instead He used dust, a humble substance. It's a good thing for us to remember when we become prideful, or begin to think too highly of ourselves and our achievements. I'm made out of dust. That realisation brings us properly back down to earth.

Second, I want you to note what animates human beings. This is again something that distinguishes us from the animals. After being formed by God man was merely a lump of well-formed “dust.” In order for us to be brought to life God did something very special. God breathed into man's nostrils. It was that divine breath of life that transformed us into living beings. This suggests a much more intimate relationship than the one God has with the animals. They may have the “breath of life” but they are not created in God's image. So let us not skip over this fact lightly. All of life originated with God, but human life began with the personal breath of God. As Dr John MacArthur puts it, “*He breathed life into all living creatures, only into man is God breathing life that is in His own image.*”

Without God, we simply would not live. Human life is completely dependent upon God, and, as a result, humans are called to worship the Lord and to serve Him only.

All of what we read about in today's passage took place in a very special place that God designed and set aside for the the first humans. I am of course referring to the Garden of Eden.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turn our attention to this subject and see what life was like in this perfect setting.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꺾어 지으시고 꺾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꺾어 령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합니다. 1 장(1:26-28)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꺾어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꺾어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셨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우선,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곧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 *adamah* 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먼지”, “흙”, “토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투성이 dusty”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물질과 방법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땅에서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치 “손을 더럽히신 *got His hands dirty*”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문자 그대로의 손이 없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으셨다 *formed*”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יצר*(*yi'ser*)인데, 이는 토기장이, 조각가, 예술가의 작업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은 형태 없는 흙덩이를 가져다가 유용한 것을 빚어냅니다. 옅도 비슷한 생각을 표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말하시니이다’ (욥기 10:8)

이사야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끼장을 어찌 진흙 같이 여겼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아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빛은 아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16)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미 존재하는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은 땅의 기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흙 dust" 이 아니라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질소, 탄소, 칼슘 등)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이 지구의 구성 요소들과 같은 원소 구조를 공유함을 증명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소파 뒤를 청소할 때 흡입되는 것은 먼지뿐 아니라 발톱 조각, 머리카락, 고자 봉지, 바퀴벌레 등도 포함 됩니다.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쓸모없는 잔해들입니다.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물질이든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은, 금, 보석, 회강암 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잘것없는 물질인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거나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도록 합니다.

둘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를 지으셨을 때 **인간의 숨** "흙" 덩어리에 불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신성한 생명의 숨결이 인간을 살아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물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동물들도 "인간의 숨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숨결로 시작되었습니다. 존 맥아더 박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숨을 주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대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따라서 인간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고 마련하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덴동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완벽한 환경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The importance of proper rest

We saw in today's passage that God chose to rest once the work of creation was complete. This established right from the onset the importance of rest. God as I highlighted does not need to rest or take a break from work. We however most definitely do. So, not surprisingly the theme of physical rest occurs throughout scripture. This should not surprise us. God as our creator knows what we need in order to live good healthy lives. Science also affirms the importance of physical rest and especially good sleep in our lives. The consequences for inadequate sleep are well known. Premature death,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obesity, a risk of heart problems as well as a whole range of mental disorders have all been connected with poor sleep habits. So most of us a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good rest.

However the hectic and stress filled lives many of us lead make resting problematic. Even when our

daily work is over we tend to stress and worry about things we have to do tomorrow. It is hard at times to still our racing minds. The question then is how can we enjoy good physical res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spiritual. When we are walking closely with the Lord it is much easier to relax and enjoy good rest. So I encourage all of you listening to draw close to God. To place your cares and worries upon Him. To turn away from the distractions of this world and spend time in the bible, in prayer or on meditating upon the good things of God. When you do this it is much more likely that you will be able to enjoy and benefit from the all important physical rest you need.

1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휴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동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 걸쳐 육체적 휴식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과학도 육체적 휴식, 특히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면 부족의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사망, 당뇨병 및 비만 위험 증가, 심장 질환 위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정신 질환 등이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도 내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영적인 면에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면서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2 From dust to glory

I'm going to tell you a rags-to-riches story. It is the story of Howard Schultz.

Schultz was born in a poor Brooklyn housing project in 1953. He grew up in a family that was alway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His father worked a series of low-paying jobs without healthcare or job security. Schultz was determined to do better. As a natural athlete, he won a football scholarship to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He became the first in his family to attend college. After graduating, he worked in sales and eventually joined Hammarplast, a Swedish kitchenware company.

His life took a pivotal turn when he noticed that a Seattle-based company called Starbucks was buying an unusually high number of coffee machines. Intrigued, he flew out to meet the founders of the company. Their enterprise and vision impressed him and he joined Starbucks in 1982 as Director of Retail Operations and Marketing. After a trip to Italy he became convinced that the company should pivot towards being a full-time coffee-house (coffee shop). The owners of Starbucks were hesitant so Schultz left. He started his own coffee shop and it was a great success. In 1987, he was able to go back and buy the Starbucks company (brand). The rest is history. The company went on to become a massive global brand.

At his financial peak, Schultz's net worth was over \$4 billion.

It's a real rags-to-riches tale. Howard Schultz rose from a life of poverty to become immensely rich.

Today we saw our own rags-to-riches tale outlined. I prefer to call ours a dust to glory story. God formed us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s we noted before there is nothing outstanding about dust. It has no value, no one trades dust on the stock-market. But then God breathed life into us. Now because we are living creatures who bear His image we have immense value. Best of all God offers us, creatures formed from dust the opportunity to attain glory. Because of our saviour Jesus Christ

we are gifted the opportunity to enjoy eternal life in God's presence. It's the ultimate dust to glory story.

If you have not yet received that gift do not delay. Confess and repent of your sins and then place your faith and trust in Christ alone for your salvation. Ensure that you too have a dust to glory story.

2 흠에서 영광으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성공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슐츠는 1953년 브루클린의 가난한 공공주택 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게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료보험이나 고용 안정도 없는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슐츠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타고난 운동선수였던 그는 노던 미시간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스웨덴 주방용품 회사인 힘마르플라스트(Hammarplast)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가 유난히 많은 커피 머신을 구매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스타벅스 창립자들을 만나기 위해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비전에 감명받은 그는 1982년 스타벅스에 소매 운영 및 마케팅 이사로 입사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에 그는 스타벅스가 본격적인 커피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경영진은 주저했고, 결국 슐츠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피숍을 열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7년 그는 스타벅스로 돌아와 회사(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압니다. 스타벅스는 거대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슐츠가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 순자산이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공 신화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가난에서 벗어나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흠에서 영광으로 a dust to glory stor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만드셨습니다. 흠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주식 시장에서 누구도 흠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흠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흠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자신만의 흠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이야기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